

투데이 칼럼

경청은 최고의 스피치

최고로 말을 잘 하는 사람은 남의 말을 가장 잘 들어 주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 스티븐 코비 박사는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에서 '충분히 경청한 다음 이해를 시켜라'라고 했다.

지난 대선에서도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후보를 선택하겠다는 여성이, 적절한 질문을 던지는 후보를 선택하겠다는 여성보다 무려 3배 이상 더 많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우리 역연에도 '말은 배우는데 2년, 침묵을 제대로 배우는데 60년'이 걸린다는 말이 있으며 경청에서 청(聽)자 '는 耳(耳)一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왕처럼 큰 귀와 열 개의 눈으로 진지한 눈빛으로 들으라 또는 '하나된 마음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으라'는 의미이다.

프랑스의 자존심 드골 대통령은 토론과 협상, 연설의 명수이자 경청의 대가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당대의 스칼린, 처칠 같은 최고 국가원수들과 협상을 하면서도 고개를 숙인 적이 없었다고 한다. 협상에 임하면 일단 침묵하고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는 편이었고 상대방이 '이제 내가 할 말은 다 했으니 당신이 할 차례요'라고 말 할 때까지 경청하고 상대가 지칠 때쯤 송곳 같은 문제 제기와 논리적으로 협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마무리 한다.

경청을 잘하는 비결은 바로 YF6:4 원칙에 있다. YF는 You First를 의



김 양 옥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담교수

미하는 것이며, 6:4 원칙은 상대에게 60% 또는 그 이상을 말하게 하고 자신은 30~40%만 말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고맙고 기쁜 일인 만큼 상대방에게 호감을 얻기 위한 첫째 조건으로 좋은 청자가 되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좋은 청자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편한 상대로 듣는거나 듣고 있다는 것을 맞장구로 표현하여 상대가 알도록 한다거나 질문을 활용하는 등으로 경소에 경청훈련을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 주의 기울이기이다. 경청 할 때는 바라보기, 듣기, 따라하기로 몸과 마음을 다하여 들을 수 있어야만 자신의 관심을 충분히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상대방의 경험을 인정하고 더 많은 정보 요청하기 이다. 다른 사람의 메시지를 인정하는 것은 언어적, 비언어적인 표현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반응이다. '오정하기는 부드러운 지시나 진술, 질문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상대방이 무엇인지 더 많은 것을 말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다.

셋째, 정확성을 위해 요약하기 이다.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이해의 정확성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과 상대방을 서로 알게 하며 자신과 상대방의 메시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다. 넷째, 상대의 진의를 포착 할 수 있다. 상대방이 현재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다섯째, 상황에 적절히 대응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상대방의 말을 집중해서 들으면 행간의 숨은 뜻을 파악할 수 있어 적절한 대응책을 세울 수 있다. 여섯째, 협력자를 얻을 수 있다. 자신이 난처한 일에 처했을 때 어떤 도움을 얻을 수 있는지를 모색할 수 있다. 일곱 번째, 비판적으로 들을 수 있다. 다양한 사람들의 발언을 접함으로써 상대의 말을 가려서 듣는 기술이 생겨난다.

여덟째, 인격형성에 도움이 된다. 아홉째, 반성과 감성력을 높일 수 있다. 열 번째, 사회적으로 성장 할 수 있다. 주관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고 사회생활의 폭이 넓어지는 경향이 많다.

경청은 말을 잘 들어주는 차원을 넘어 효과적인 스피치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비즈니스에서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진정한 스피치 달인은 말만 유창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청의 달인이 바로 최고의 스피치 달인이고 최고의 스피치 효과를 낼 수 있다.

감성과 표현의 시대에 경청으로 효과적이고 실용의 스피치인이 되어 성공하자.

기자수첩

대한노인회 진안지회, A모 감사 징계 등 후속조치 따라야

"머꾸리지 한 마리가 방죽 전체를 흐리게 하고 있는데도 1만 여명의 회원들이 방관만 해야 하니 정말 개탄스럽다." 사)대한노인회 진안군지회 회원들의 지적이다.

그도 그럴 것이 대한노인회 진안군지회에는 지난 3월 17일 감사 선거에서 당선된 A모씨(79)가 감사에 입후보 하기 위해 진안읍분회장직(진안읍회장)을 사퇴하고 절차에 따라 감사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A모 감사는 당시에는 진안군지회규칙을 잘 몰라서 진안읍분회장직을 사퇴했다며 사표를 철회해달라고 진안군지회에 요구했다. '합당한 법 절차에 따라 사표를 수리했다며 거절하자, 현재 자기가 진안읍분회장이라고 분회사무일로 출근을 하고 있



우 태 만  
지방부  
잔안주재

어 개도하지 않을 짓을 사담이 하고 있어 시중에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더욱이 진안읍분회는 회장이 감사에 입후보하기 위해 사표를 제출해, 공석이 되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오는 21~23일 3일간 후보등록을 마치고 30일에 회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나, A모 감사가 분회장으로 근무할

당시 임명된 이사들이 지난 14일 갑자기 이사회를 열고 선거일을 무기한 연기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기한 이유는 A모 감사가 사표를 냈지만, 연관은 다시 회장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이사 9명 중 3명만 반대하고 6명 찬성으로 무기한 연기한 것이다.

이 또한 전면 무효로 선거와 관련된 모든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처리해야 함에도 연기가 어려울 것 같아 보이자, 이미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를 무시하고, 이사회를 열어 불법을 자행한 것이다.

A모 감사는 진안군지회규칙 제16조2항에(분보 15일 9명은) '각급회장 및 임원은 임기 중에 각급 회장에 입후보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직을 사

퇴해야한다'고 돼 있어 감사는 사퇴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노인회 전북특별자치도 연합회 관계자는 "감사와 분회장은 절대로 겸직을 할 수 없다. 분회장은 진안군지회 당연직 이사로 등록돼 진안군지회의 업무를 지휘감독 함께 관장하는 데 만약에 잘 못이 발생 했을 경우, 누가 누구를 감사 하겠냐"며 "이해충돌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외부에서 진안으로 발령받은 공무원들은 근무하고 떠나려 할 때에는 인사 좋고, 경치 좋고 살기 좋은 시골마을 진안에서 떠나기 어렵다고 했는데, 인심 좋은 진안에 어찌대 머꾸리지 한 마리가 전체 방죽을 흐리게 하고 있는지 제어하지 못하는 것이 아쉬울 따름이다.

사설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

개관 25주년을 맞은 한국소리문화의전당(대표 이승필)이 '배리어 프리 기획전-우리가 바라보는 세계'를 지난 19일까지 전시장 1층에서 전시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는 서로 다른 삶의 자리에서 출발한 사람들이 세계를 바라보는 각자의 방식에 주목한 전시다. 사회생활에 지장이 되는 물리·심리적 장벽을 없앤 배리어프리 전시로 기획했다. 전시는 '얼굴'에서 시작해 '기억'으로 끝나는 세계의 여정을 제안한다.

첫 번째 섹션은 '니 얼굴은 예뻐서'로,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로 대중에게 깊은 울림을 줬던 서은혜 작가의 작품들로 구성됐다. 수천 명의 얼굴을 마주하며 이야기기를 나누고, 그림을 그려온 서 작가의 정형화되지 않은 선과 사람이 향한 따뜻한 시선들을 그림 속

에서 만나볼 수 있다. 두 번째는 '함께 바라보다'를 주제로, 서은혜 작가가 소속된 어메이징 아웃사이더 아트센터 소속 작가 24명이 참여한다.

어메이징 아웃사이더 아트센터는 발달장애 예술가들이 작업하고 성장하는 작업실 겸 작업으로, 이 섹션의 작품들은 동료들 향한 애정과 일상의 발견을 대담한 색채로 풀어낸 점이 특징이다.

세 번째 섹션은 '기억의 자리'를 주제로, 전북장애인미술협회 소속 작가 15명이 참여했다. 작가들의 삶이 투영된 풍경 속에서 찾은 색과 감정, 이야기 등을 작품 속에 담아냈다.

한편, 지난 18일에는 서은혜 작가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인생하세요 은혜씨 작가님입니다'가 연지홀에서 별도로 열려 관심을 모았다.

환율에 영향 미친 중동 사태

지난 3월 말 1.510원 대까지 급등했던 원달러 환율이 공격 중단 소식 직후 떨어졌다. 원 달러 환율은 중동 사태 발생 이후 1,400원대 후반을 내달리더니 3월 19일부터 폭 1,500원 선 위에 머물렀다.

단번에 17일 가까이 올라 1.517원 30점을 기록하기도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1.550원대까지 치솟았던 2009년 이후 17년 만에 높은 수준이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높아지면, 상대적 안전자산인 미국 달러 수요가 늘고 원화 가치는 하락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중동의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고 또 유가가 급등할 경우에 아무래도 우리나라 경제 활동에 대한 부담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 주식을 팔고 있어서 원화 가치가 다

른 나라보다 더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분석된다.

은행의 공항 영업점 환율은 1,570원도 넘어섰다. 당장 환율이 필요한 유학생, 여행객 부담이 커졌다. 유학생들의 경우 한 달 생활비가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1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보면 12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될 것 같다. 부어 상품도 너무 경비가 많이 들 것 같다. 다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5일간 유예한다고 밝힌 뒤, 환율은 또 떨어지며 다시 1,500원 아래로 내려왔다.

국내 증시도 급락했다. 코스피는 6% 넘게 빠지며 5,400선을 간신히 지켰고, 코스닥은 5%대 하락하며 장을 마쳤다. 공포감은 채권시장에도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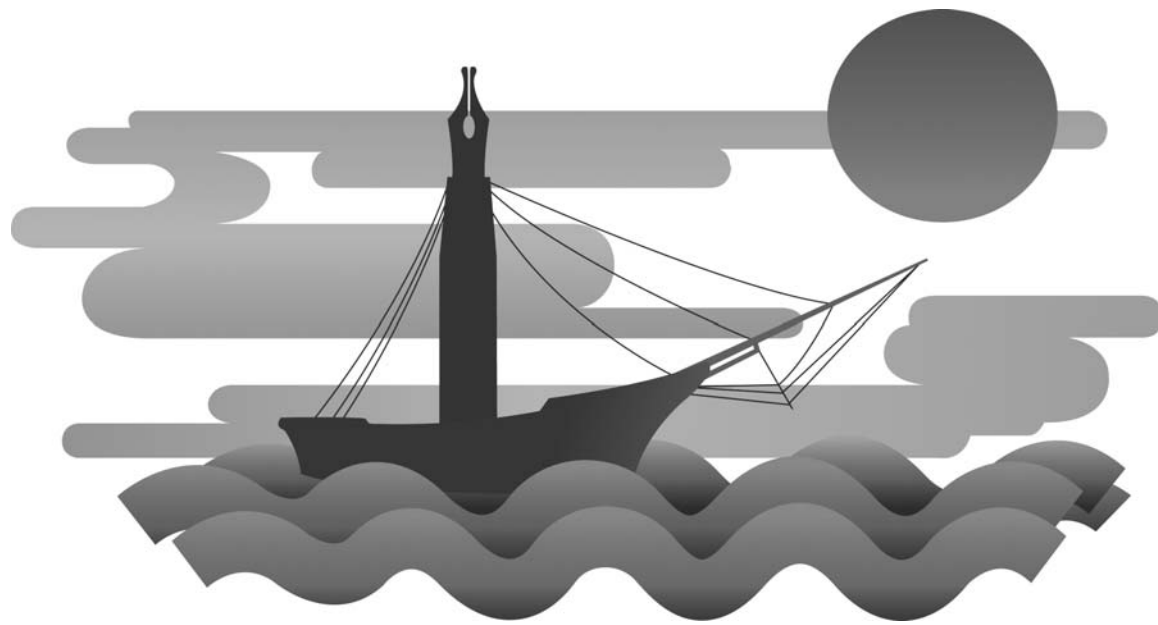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사내·외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송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덕목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